

濟州觀光研究의 動向 및 展望

張 聖 洙*

이 글은 濟州觀光에 관한 지금까지의 研究成果를 考察해 보고 앞으로의 展望을 提示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런데 濟州觀光에 관한 研究實績物에 대해서는 이미 金泰保(〈耽羅文化〉 4, 1985) 教授가 時代別·分野別로 그 目錄을 자세하게 調査해 놓은 바 있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金泰保 教授의 調査研究를 土臺로 하되 1986年末까지의 資料를 補完해 濟州觀光研究의 動向을 點檢·要約해 보는 한편 앞으로의 研究傾向을 나뉠대로 推定·提示해 보고자 한다.

I. 年代別 研究動向

濟州觀光에 관한 研究는 濟州道에서 觀光事業에 대한 關心이 싹트기 시작한 1950年代末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게 되는데 1959년에 發表된 「濟州道 觀光開發 3個年計劃」(1960~1962)에서 이미 研究다운 研究作業의 實在를 미루어 確認해 볼 수 있다.

1960年代에는 「濟州道綜合建設計劃」(1964. 12)이 樹立됨과 同時에 建設部의 〈濟州道 特定地域 綜合建設計劃報告書〉(1967), 韓國綜合技術公社의 〈濟州道 特定地域 綜合建設調査報告書〉(1968)가 연이어 調査 報告되어 濟州觀光研究에 있어서 先導의 研究기틀이 造成되기 始作했다.

이 때의 研究實績物들을 살펴보면 文化的 觀光資源에 대한 것들도 一部

* 濟州大學校 觀光經營學科 教授

눈에 띄기는 하나 濟州道 綜合開發戰略의 一環으로써 觀光開發에 關心을 둔 것이 大部分으로 거의가 斷片的이며 序說的인 研究의 性格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行政當局의 開發計劃事業에 대한 調查研究報告書 내지 行政誌인 《濟州道》誌를 통해서 發表된 研究가 主流를 이루었던 가운데, 調查研究의 大部分이 國家의 觀光開發政策과 地方行政과의 密接한 關聯 속에서 中央政府의 濟州地域에 대한 觀光開發政策의 一環 내지 地方行政方向의 模索過程下에 進行되었다는 點에서 두드러진 時代的 特徵을 가졌다 고 보아진다.

1970年代에 들어서서 濟州觀光에 대한 研究는 1960年代에 비해 점차 多樣해진 濟州道內 研究人力의 登場과 함께 그 調查 및 研究領域이 擴大·細分化되 갔다. 이와 같은 研究活動의 進展은 ① 國立公園·指定觀光地의 指定告示, ② 觀光綜合開發計劃의 確定, ③ 濟州大學 및 濟州專門大學內 觀光學科의 設置, ④ 《濟州道》 등의 行政誌 外에 《開發濟州》, 《月刊濟州》, 《濟州商工》 등의 綜合雜誌의 發刊, ⑤ 評價教授團 및 道政諮問委員會의 《道政研究 및 評價報告書》와 같은 調查研究 등에 의해 促進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렵의 研究主題들을 調查해 보면 初期에 觀光開發方向, 綜合開發計劃, 觀光施設擴充 및 觀光事業振興 등에서 後半期에 이르러 自然 및 文化資源의 保存, 觀光開發과 道民所得과의 連繫方案, 開發에의 參與方案 등으로 研究領域이 擴張되 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濟州觀光研究의 深化·發展現狀은 1980年代로 들어오에 따라 더욱 현저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는데, 1986年末에 이르기까지 1980年代 濟州觀光研究의 特徵은 대개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要約되어질 수 있다.

첫째,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1982~1991)에 依據한 「特定地域 濟州道 觀光綜合開發計劃」(1985.3)의 樹立을 前後하여 從前의 觀光開發計劃에 대한 反省을 中心으로 觀光事業의 波及效果에 대한 諸般關心이 한층 높아짐과 同時에 새로운 合理的인 政策方案提示에 대한 研究成果들이 적지 않게 쌓여 왔다.

둘째, 濟州道와 國土開發研究院이 共同主催한 「濟州道 地域開發을 위한

開發學術會議」(1983. 7)와 世界平和教授協議會 濟州道支會가 開催한 「國際化時代와 濟州道에 관한 學術세미나」(1983. 11) 및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가 主催한 「濟州道와 하와이 間的 島嶼地域開發 協力에 관한 國際學術세미나」 등 國內外 多數 學者가 參加하여 主題發表와 討論을 行하는 方式의 發表研究가 本格 登場하기 始作함으로써 道內의 研究熱이 加一層 促發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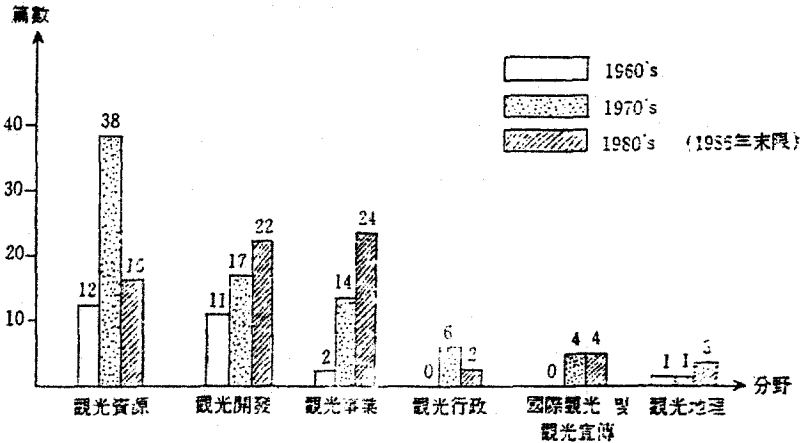
세제, 濟州道當局에 의한 《濟州道誌》의 編纂에 이어서 《濟州市誌》 및 《南濟州郡誌》가 出刊되었고, 《西歸浦市誌》와 《北濟州郡誌》 또한 조만간 發刊豫定에 있는 등 濟州觀光研究에 관한 底邊의 基盤資料가 微弱하나마 道內 行政當局에 의해 마련되기 始作했다.

네제, 國內 觀光專門教育機關의 定着化·高級化 趨勢와 함께 濟州觀光研究을 主題로 한 碩士學位論文의 數가 10餘篇에 達하는 등 全般的인 研究水準의 向上이 이루어지고 있다.

Ⅱ. 分野別 研究概觀

韓國觀光學會에서는 研究分科를 ① 觀光教育 및 訓練, ② 觀光資源調查 및 開發計劃, ③ 觀光마케팅, ④ 觀光政策, ⑤ 旅行斡旋經營, ⑥ 觀光宿泊經營, ⑦ 食飲料, ⑧ 觀光交通, ⑨ 觀光客利用施設의 9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그러나 濟州觀光에 대한 研究分野는 여태까지의 研究成果로 보아 金泰保教授가 分類한대로인 ① 觀光資源, ② 觀光開發, ③ 觀光事業, ④ 觀光行政, ⑤ 國際觀光 및 觀光宣傳, ⑥ 觀光地理의 6가지로 나누어 보아도 無妨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各種開發計劃報告書 등을 除外하고서 1986年末까지 發表된 學術的 研究實績物의 數篇을 놓고서 各 分野別 研究成果를 數值的으로 比較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方法은 研究成果를 紙面부피 또는 質의水準에 考慮없이 오로지 研究題目의 多寡로서만 比較한다는 點에서 批判을 免하기 어려우나, 分野間 研究成果를 가장 간단하게 計測的으로 吟味할 수 있다는 點에서



〈Graph〉 研究分野別 學術的 研究實績物 篇數

한번 試圖해 볼 만한 價値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既存 研究成果에 대한 調査의 完壁性與否와 各種 研究實績物에 대한 研究分野判定의 妥當성을 어느 程度 甘受한 채 研究分野別로 研究實績物數를 確認・整理하면 圖示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핏 보아서도 觀光行政分野를 除外한 모든 分野에서 研究作業이 계속 高調돼왔다는 事實을 짐작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觀光資源分野 및 觀光開發分野가 殊로 比重있게 다루어져 왔다는 點은 결코 看過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最近間에 들어 觀光事業分野가 으뜸을 차지하도록 研究關心이 높아지는 傾向도 눈여겨 볼만한 事實이 아닐 수 없다.

Ⅲ. 課題 및 展望

國內 餘他地域에 비추어 보더라도 濟州觀光에 대한 研究는 지금까지 量的인 면에서 刮目할 만한 成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比較的 여러 方面에 걸쳐 多樣하게 試圖돼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짧은 歷史에도 不拘하고 이미 地域産業 가운데 으뜸가는 産業의 자리를 차지한 濟州道의

觀光産業을 생각해 볼 때 相互間 극히 當然한 歸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豫想되는 觀光産業의 成長速度와 地域內 影響力提高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이와 같은 研究動向이 持續될 것임은 너무나도 明白하다.

그러나 周知하다시피 濟州觀光研究는 아직껏 高度화된 學術的 理論體系下에서라기 보다 多分히 目前을 위한 實用的次元에서 다뤄진 發意的 代案探究程度에 머물러 왔으니 만큼 한편으로는 質的인 面에서의 浮沈性 내지 不安定性을 깊숙히 內包한 狀態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私見이기는 하나 濟州觀光研究에 있어서 점차 맞닥뜨리게 되거나 또한 重點的으로 追求해야 할 事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點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다.

첫째, 多元化 및 專門화된 微視的 研究 뿐만 아니라 研究成果間의 一致性을 찾는 綜合的 研究가 보다 더 併行되나 갈 必要가 있다. 이에 따라 주로 社會科學的 研究에만 치우쳐 온 過去의 研究形態를 反省함과 아울러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이 結付된 綜合科學的 形態의 研究가 脚光받을 可能性이 높아졌다.

둘째, 우리 社會의 現在 雰圍氣上 ‘保存과 開發’, ‘觀光所得의 適正配分’ 등 衡平開發意志를 合理的으로 實踐시킬 수 있는 研究의 價値性이 한층 돋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研究는 高度화된 計量的 技法을 利用한 모델 適用과 濟州觀光모델 研究 등에 의해 뒷받침된 產物로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目前에 둔 地方自治制의 實現과 國際觀光往來의 持續的 增加에 隨伴해 相對的으로 취약했던 觀光行政分野와 國際觀光 및 觀光宣傳에 대한 分野의 研究가 제법 活氣를 떨 것으로 豫想된다. 이와 함께 觀光先進國의 觀光機構 및 組織을 본 따거나 또는 開發經驗을 習得하기 위한 方便으로 國際間比較研究에 더욱 拍車가 가해질지도 모른다.

그 밖에 官主導의 開發方式에서 民間主導의 開發方式으로 開發主體가 轉換함에 따라서 產學協同에 의한 研究成果의 振作도 豫想되는 한편 個別企業體의 立場을 中心으로 한 研究內容이 차차 선보이기 始作할 것이다. 또한 長期的으로는 民間企業內 職業的 專門研究人力에 의한 研究實績物도 宣傳·弘報資料의 製作水準을 넘어서서 하나 둘씩 登場할 것임에 틀림없다.